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 나선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긴급대응 맡게돼 기간 대폭 단축, 인공지능기반 치료제 개발 나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선정돼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맡게 됐다.

이 사업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존 연구개발이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한 긴급대응연구체계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신속진단제(RapidKit) 개발, ▲인공지능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제창출, ▲코로나

19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등 4개 분야 연구를 하게 된다.

이 중 연구소는 코로나19의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분야를 맡아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최근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분양 받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명진종 교수가 중심이 돼 바이러스 위해도 특성 분석을 시작했다. 연구 기간은 2년이다.

이와 함께 이상명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겸임교수)는 기업체로부

터 용역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 정복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동물생물안전3등급(Animal Biosafety Level ABL3) 밀폐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 시설을 인준받았다.

이를 통해 고병원성 AI와 사스, 메르스, 브루셀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명진종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를 특히 해야 코로나19 및 향후 유행할 신종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명 겸임교수(환경생명자원대학)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부소장(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에서 우리 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도교육청, 전북 혁신교육 백서 출간

10년의 역사·성과 정리 미래 교육 발전 대안 제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혁신교육 10년을 맞아 전북 혁신교육 백서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혁신교육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하고, 또 전국적·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미래교육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백서를 발간한 계획이다.

이번 백서에는 영역별 기록과 실천, 성과 정리, 향후 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일반시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혁

신교육 이해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성장기를 담은 단행본도 발간한다. 또한 세계 혁신교육에 비추어 본 전북혁신교육의 성과 정리 및 홍보를 위해 영문본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북 혁신교육정책 10년사도 출간한다. 이는 모든 학교, 기관을 포함한 시기별 정책과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과 학교의 성장 연계성을 분석해 혁신정책의 아카이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학교별 백서도 출간한다. 현재 학교별로 백서는 5개교, 동영상

제작은 4개교가 이미 제작을 마친 상태다.

특히 올해 안에 혁신학교 졸업학교를 중심으로 20개교 내의 학교가 백서, 단행본, 웹툰, 그림책, 영상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혁신교육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를 통한 이론적 검증은 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혁신을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교육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대, 무료 인문교양강좌

전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인문교양강좌 '온다라 교양 플라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다라 교양 플라자'는 전라북도의 역사·문화적 인문자산을 알아보고자 기획된 인문 교양 강좌며,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강좌는 약 30명 내외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오는 24일까지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jar.kr/hk/)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063)220-3201~3203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학교에서 보내온 마스크에 감동"

대구경북 거주 학부모, 전주대에 감사편지 눈길

"내 가족만 챙길 줄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전주대학교에서 SNS를 통해 공개한 대구·경북 거주 학부모가 보낸 감사편지가 눈길을 끈다.

현재 포항에 거주중이라고 밝힌 이 학부모는 전주대에서 보내온 마스크 10장과 위로편지를 받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편지를 전했다.

학부모는 "큰 아이를 전주에 두고 코로나 19로 여름에 휩싸인 도시 포항에서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내온 마스크 10장으로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경북 거주 학부모가 보낸 감사편지

3월 초 해당 지역 거주 학생 78명의 가정에 마스크 10장과 총장 명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지난 11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민관협력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를 개최했다

전주교육 내실화 '머리 맞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지난 11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민관협력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심의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전주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교육협력 체제 강화로 교육경

비 유치 확대 및 지속적인 전주교육발전사업 추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전주교육지원청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주교육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